단간 뉴스레터

Dankook College of Nursing

2023 _ 제2호
2023.11.30. 발행
발행인: 간호대학장 이 숙
편집: 간호대학 동아리 H&I

올해 제2호 간호대학 소식지를 마련해준 H & I 동아리 박채영 회장과 회원여러분, 간호학과장 조윤희 교수님께 먼저 감사하며 축하를 보냅니다. 작년 간호대학 창립 30주년과 동문들의 홈커밍 데이에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소식지는 재학생들이 코비드 상황에서 제한된 만남을 하였기에 더욱 반가웠지요. 이번 소식지는 홈커밍 데이가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기에 재학생뿐 아니라 동문들에게도 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단국대 간호인으로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을 키우는 밭이 되고 희망으로 세움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학과

대학생활의 시작, 신입생들의 길잡이, DK로드맵

DK로드맵은 대학생활과 학업 정보의 전달, 전공에 대한 탐색과 이해, 교수님 및 선배 • 동기와의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신입생의 대학생활 설계를 돕는 단국대학교의 대학적응 프로그램이다.

2월 21일 13시 입학식을 마친 후 의학관에서 새로운 간호학도들을 위한 DK-warming up(전공 warming up)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DK-warming up은 전공과 학과를 소개하는 과정으로 학과 교수 및 교육과정, 진로, 학생단체(학생회, 동아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학년별 학과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 등 단국대학교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기적 학업 계획에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졸업 후의 다양한 진로와 학과의 연관성을 소개해 간호사라는 획일적인 진로에서 벗어나 여러 진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진로 방향성에 대한 시각을 넓혀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 밖에도 학업 외 활동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과의 전반적인 운영, 행사의 기획/진행을 맡고 있는 학생회와 대학생활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아리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고 간단한 퀴즈를 통해 내용을 상기시키며 성공적으로 DK-warming up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었다.

22일은 DK-wow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조를 나눠 학생회의 인솔 하에 학교를 투어하고 교내 건물들의 위치와 각종 부서 및 학사제도 등 선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정보들을 전달해 신입생들의 빠른 적응에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DK로드맵 프로그램은 4년만의 대면 입학 행사로 높은 만족도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출발선에 선 신입생들은 진로, 학업 등 대학생활 속에서 미래를 그려 나가기 위한 가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
전문간호직의 사명과 윤리를 아로새기다

2023년 2월 22일, 단국대학교 의학관 1층 대강당에서 간호대학 간호학과 2023년도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개최되었다. 이는 임상 실습을 시작하는 3학년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내빈을 모신 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간호사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치르며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나이팅게일 선서는 간호학도들이 간호사로서 윤리와 간호 원칙을 담은 내용을 맹세하는 선언이며, 근대 간호의 선구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으로 바쳐진 것이다. 간호학도들은 2년간 기초적인 수업을 마치고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손에 촛불을 든 채 가운을 착용하고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거행한다.

동문회에서 후배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 등을 배부하고 학생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통해 학우들에게 축하를 전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기념하였다. 예비 3학년 학우분들은 간호사가 되기 전 숭고한 정신을 잇고자 하는 선서식을 통해, 간호학도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실습 전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하며, 앞으로 임상 실습을 진행하면서 수준 높은 간호를 배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과학기술대학 x 간호대학 연합 봉사활동
천호지 정화

5월 8일 단국대의 천호지 둘레길 정화를 위해 과학기술대학과 간호대학이 연합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과학기술대학과 간호대학 학우들이 연합 조를 이뤄 천호지 둘레길을 걸으며 담당 구역의 쓰레기를 줍는 방식으로, 활동에 참여한 학우들은 봉사시간을 받았고, 뒤풀이 행사를 통해 타 대학 학우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단국대학교 학생으로서 교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합 활동이라는 점에서 경험의 시각을 넓히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 대학생활에 있어 가치 있는 봉사활동이 되었다.

국제 간호사의 날, 음료 나눔 행사

5월 11일, 다가오는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이해 학생회에서 커피차 음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의학관에서 10시부터 14시까지 학회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기 위해 1972년 국제간호협의회에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인 5월 12일로 제정한 날이다. 해당 행사는 음료를 나눠 마시며 간호사의 날을 알리고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사의 사회 공헌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단국대 간호학과 MT

2023년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간호학과 MT가 진행되었다. 해당 연도에 진행된 MT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시행된 학과 행사이다. 매우 오랜만에 다시 시행된 만큼 간호학과 학우분들의 기대와 관심이 컸다. MT에서는 개인전 O/X 퀴즈뿐만 아니라 간호학과가 대형 과인만큼 조 별 게임으로도 진행되었다. 조 대표 변형 게임, 조 대항 게임 등 평소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선 후배 간 교류를 도모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3년 만에 다시 시행된 간호학과 MT는 학생회의 도움과 간호학과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대동제 간호대학 부스 '널스터치'

2023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단국대학교 축제인 대동제가 개최되었다. 간호학과라는 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 패스트푸드 브랜드 '맘스터치'의 이름과 비슷하게 간호사를 의미하는 'nurse'와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을 의미하는 'touch'를 합성한 단어인 '널스터치'라는 키워드로 부스를 운영하였다. 무더운 날씨를 물리칠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달콤한 츄러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였고 간호학과 부스의 전통인 커플 매칭을 이번 연도에도 진행하였다. 커플 매칭과 아이스크림, 츄러스는 단국대학교 학우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간호학과 부스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의치약간 농촌봉사활동

2023년 7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군산시에서 의치약간 연합 농촌봉사활동이 진행되었다. 4개의 단과대학이 연합하여 진행하는 큰 활동은 처음이었기에 많은 학우들의 기대를 얻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농번기에 방문하여 일을 돕고 학우분들 사이의 연대를 다졌다. 본인 단과대 학우들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학우들과도 함께 어울리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여름인 만큼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든 단과대의 학우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농촌 일을 도왔으며 보람을 느끼고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었다.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간호법 지지 행사 참여

2023년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이 열렸고 2만여명의 간호사가 간호사를 상징하는 흰색 상의를 입고서 광화문에 집결하였다. 이날 자리에 모인 간호사들과 간호대학생들은 입법을 앞두고 의사, 간호조무사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간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단국대학교 간호학도들은 '간호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간호법 지지에 동참하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간호학도들 사이에서는 간호법 관련 프로필 변경 운동을 진행하며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동참이 이어지도록 돕기도 했다. 특히,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하다는 점과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들은 날조된 가짜뉴스임을 명확히 밝히는 포스터로 프로필 변경 운동을 하고자 했다.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에서 주관하여 전국 간호대학생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을 통해 다함께 단결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하였고,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링크 전달을 통해 전국민적으로 간호법 서명운동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른 간호법제정 챌린지로는, 간호법 제정을 희망하는 누구나 "#간호법을 지지합니다"를 본인 자필로 작성한 사진을 업로드 하는 이벤트를 통해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모으고자 하였다.

2023년 5월 16일에는 국민의 힘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였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호법이 거부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5월 17일,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단체행동 관련 향후 1차 방향에 의거하여 준법투쟁과 대항의지를 담은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를 학과 홈페이지와 간호대학 별관 1층에 게시하였다. 학우들은 간호사와 간호학도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인지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간호법이 최종적인 법률로 확정되기까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각자의 의견을 표하며 고찰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단국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졸업 결과

단국대학교 간호학과는 현재 일반대학원과 보건복지대학원 노인전문과정을 운영 중이며, 2023년 기준 일반대학원은 재학생 석사 24명, 박사 7명으로 현재까지 총 6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보건복지대학원은 재학생 14명으로 현재까지 총 60명이 졸업하였다.

2023년 일반대학원 석 • 박사 학위논문

[석사 학위논문]

▸이경희(Lee, Kyonghee),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 영향 요인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 High-risk Newborn Admitted to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박사 학위논문]

▸이지인(Lee, Ji-in), 병원간호사의 의사소통 기술 측정도구 개발 The Development of a Tool to Measure Hospital Nurses' Communication Skills

▸심지연(Shim, Jiyeon),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Clinical Practice Stress Management Program of Nursing students

강연

11월 9일(목), '2023 간호대학 건강증진연구소 & 의과대학 의학교육전략연구소 공동학술대회'가 '전문직 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해당 행사는 유혜진 교수님(단국대학교 간호대학)께서 사회를 맡아주셨고, 이숙 교수님(단국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임유미 교수님(단국대학교 간호대학, 건강증진연구소 소장)의 축사로 막을 열었다.

이 행사는 대학교육과 실제 현장의 간극을 좁혀 학생들에게 더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와 이미 IPE(전문직 간 교육) 이해를 수업으로 진행해본 학교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단국대학교 IPE 이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바람을 바탕으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 간의 이해를 위한 수업이 개설된 학교(성신여자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의 교수님들의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IPE 이해 수업의 효용성과 구체적인 교육 방법, 효율적인 IPE 이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수자와 학교의 노력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22.11.09 간호대학 홈커밍데이

동창회 임원 및 1기 참석

단국대학교 간호학과는 학과 설립 30주년을 맞아 동문들을 초청,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였다. 동문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호사 양성에 써달라”며 발전 기금 8,300만 원을 전했다. 간호대학 총동문회가 모교에 기부한 발전 기금은 현재까지 2억여 원에 달한다.

김종경 교수님 퇴임식

교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단국대학교 간호학과에서 간호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해주신 김종경 교수님의 퇴임식이 2023년 2월 13일에 진행되었다.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을 대표하여 김종경 교수님의 퇴임식에 참석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였다.

인터뷰

동문회 임원을 소개합니다.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동문회 18기 박지현 총무님

올해 소식지에서 소개할 인물은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동문회의 기금과 수입 · 지출을 관리하시는 박지현 총무님입니다. 박지현 총무님께서는 동문회에 관한 이야기와 학교생활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박지현 총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인터뷰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단국대학교 병원 21병동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동문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Q: 동문회 이사회의 일원이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A: 회장님이랑 같은 병동에 있었을 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Q: 동문회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작년에 30주년이었어서 같이 동문회 기부 기금 모으는 것을 했었는데, 그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서 좀 뿌듯했습니다.

Q: 동문회 임원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A: 방금 얘기한 부분이 제일 보람이 있었고, 동문회에서 1년마다 모임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아쉽습니다.

Q: 동문회 총무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낀 부분은 없으셨나요?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A: 특별히 어려운 점은 많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대부분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웠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Q: 간호학과 졸업 후 어떤 일을 하셨나요?

A: 저는 계속 단국대학교 병원 외과병동에서 일을 해왔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Q: 그 일을 해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르침이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A: 다 열심히 하니깐 와서 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병원만 길이 있는 건 아니어서 가끔 적응 못하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니까 너무 상심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임상 한번 경험해 보고 안 맞으면 다른 할 일도 많고, 맞으면 계속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맞는 쪽으로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Q: 모교 간호학과에서 매년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어떤 간호인이 되길 바라시나요?

A: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Q: 총무님께서는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후회되거나 아쉬웠던 일이 있으신가요?

A: 좀 더 많이 놀았어야 됐어요. 일을 하면 방학도 없고 뭔가 돈은 있지만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없어서 학교 다닐 때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많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Q: 작년에 학과 설립 30주년을 기념한 홈커밍데이 행사가 있었는데, 모교 간호학과를 다시 본 감회가 어떠셨나요?

A: 제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참석은 못 했습니다. 작년에 홈커밍을 하면서 1기 선배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계속 쪽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A: 동아리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고 소식지도 싣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받아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단간 톡톡! 일문일답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1-4학년 학생들의 공감되는 이야기들을 담은 인터뷰가 지난 9월 말 진행되었다. 남학생부터 교직 이수 학생까지, 이들이 전하는 다양하고 생생한 수업 후기와 학교생활 팁을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자.

간호학과 1학년 이지범

Q. 단국대학교를 입학하기 전과 후의 간호학과에 대한 차이를 묻고 싶습니다.

A. 입학 전에는 주변에서 흔히 들려오는 간호학과는 많은 공부량과 과제, 취업 준비를 위한 대외활동으로 굉장히 바빠 놀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나니 공부량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이긴 해도, 동아리 활동이나 놀러 가는 것을 못 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대외활동도 가끔씩만 해도 충분하다고 선배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가장 큰 걱정이었던 공부와 관련된 염려가 덜해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문과를 나왔는데, 학과 특성상 문과에게 힘들 수 있는 과목들이 많아 입학 후 공부에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학 전에는 남학우분이 6~7명 정도밖에 없을 줄 알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입학 후 보니 무려 20명이나 있어서 너무 안심했습니다.

Q. 특별히 간호학과를 선택한 동기나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저는 원래 경찰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경찰 관련 학과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 경찰시험을 쳐도 갈 수 있는 경찰을 여태껏 열심히 준비한 내신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를 찾아보던 중 때마침 적성검사 결과가 경찰 다음으로 간호사였고, 제가 직업을 가짐에 있어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 보람이나 금전적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제시해 줄 수 있기에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선택에 힘을 실어 준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집에 있을 때 아프면 부모님이 늘 간호해 주시고는 했습니다. 사실 간호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진심으로 걱정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간호는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정말 좋아했고, 요양원 봉사에서 조금 귀찮아하는 다른 몇몇 친구들과 달리, 노인 분들과 정말 즐겁게 말동무가 되어드리며 따뜻함을 조금이나마 전해드리며 봉사에 임하고 있는 저를 보았기에 간호학과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Q. 지난 간호학과에서의 첫 한 학기를 보낸 소감과 앞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간호학과 1학기를 보내며 느낀 점은 우선 사람이 많은 대형 과라는 특성상, 분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과의 모든 동기들과 친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 동기들과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엠티를 가거나 할 정도로 친하다고 하는 타과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부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는 무조건 최대한 많이 놀 수 있을 만큼 놀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2학기 들어와서 접한 공부량과 과제는 1학기에 비해 놀 수 있는 시간이 반의 반으로 줄어들게 할 만큼 만만치 않은 시기이기에, 1학기에 학점은 3점대만 유지하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일단 학점 4점대를 받고 유지하고 싶고, 조금 더 다양한 동아리에 들어가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1학년 1학기와 2학기 통틀어 하나의 동아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2학년부터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야를 다루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여러 체험을 해 보고 싶습니다.

Q. 대학 생활 중 이건 할만하다 싶은 자기 계발 및 취미 활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자기 계발은 운동하고 책 읽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 운동은 자신의 신체 및 건강 능력을 증진시켜주는 것은 물론, 학업 스트레스까지 해소해 주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피곤한 대학 생활에 운동으로 더 피곤해지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밤 늦게까지 운동을 하고,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오면 평소보다 집중이 더 잘 되는 것을 느낀 적이 종종 있습니다. 또 책은 읽어서 절대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책의 머리말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작가들이 자료 조사만 최소 몇 년을 하고, 깔끔한 글을 전달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책을 집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으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일안에 작가의 수년간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평소 생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도 있고, 책을 읽을 때 보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멍 때리고, 그들의 분위기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책을 도저히 못 읽겠다고 한다면 일어나서 뉴스라도 짧게 보고, 어떻게든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Q.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으로 들어오면 알아야 할 꿀팁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간호학과 1학년으로 들어온다면 우선 가장 걱정되는 게 수강 신청이겠죠?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 계획 도우미, 네이비즘, 창 여러 개 띄우기. 우선 수강 신청 계획 도우미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 순서대로 담아 수강 신청 시 담은 순서대로 정확히 뜨기 때문에, 클릭 후 엔터만 연속해서 누른다면 올 클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마다 서버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이비즘을 통해 단국대 서버 시간을 정확히 알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을 여러 개 띄우는 것은 수강 신청 정각에 누르는 것 보다 정각이 되기 0.02초 전에 눌러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들어가려고입니다. 하지만 클릭했는데 정각에 못 맞췄을 경우를 대비해 창을 여러 개 띄워 놓아야 합니다. 공강 시간엔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카페에 가서 천호지를 보며 맛있는 빵과 음료를 먹으면서 얘기만 해도 행복하구요. 여학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관에 여자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구대도 있고 침대도 있다고 하네요!. 만약 학점을 잘 챙기고 싶다고 하신다면 공강 시간엔 무조건 복습하세요. 저는 항상 수업 후에 복습을 하는게 기억에 오래 남아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시험 기간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선배들이랑 친해지고 싶다면 활발히 활동하는 과 동아리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 학과 분들과 친해지고 싶으면 재미있는 중앙 동아리에도 여러 동아리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 2학년 조수지

Q. 첫 교내 실습을 한 소감 그리고 꿀팁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처음으로 흰 가운을 입고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던 게 가장 생각이 많이 납니다. 실제 병실처럼 만들어놓은 실습실도 신기했고, 병원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의료 기구들을 직접 만지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꿀팁이 있다면 오픈랩에 최대한 참여해서 실습 시험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실제 환자를 대한다고 생각하며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습을 위한 의료 기구들도 항상 구비가 되어있으니, 많이 써보는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꿀팁이라고 생각해요!

Q. 추천하는 교양과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A. 대부분 의학이나 간호 교양을 추천하지만 '4차 산업과 서비스 경영' 과목을 감히 추천해봅니다. 간호사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직이기 때문인데요, 이 과목에서 서비스직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자세나 매너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매너를 배울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의학과 간호와 연관된 교양으로는 '생활과 스포츠의학' 과목을 추천해요. 스포츠와 관련해서 부상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 지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테이핑이나 스트레칭 방법 등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많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 1학년 때와 비교하여 전공 과목을 배운 소감은 어떤가요?

A. 1학년 때는 해부학 책만 들고 다녀도 멋있어 보이는 사람 같았는데 2학년으로 올라와서 생리학, 약리학, 병리학 등 간호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목을 배우니 진짜 내가 간호학과에 진학했구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겁지만 위와 같은 전공 교과서를 들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어요.

Q. 시험공부 노하우가 있나요?

A. 전공 특성상 외울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통으로 암기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죠. 하지만 양도 너무 많고 난이도도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묶어 외우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을 떠올리면서 공부하면 더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참고로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라 손으로 쓰면 더 잘 외워지는 것 같아서 시험기간에는 귀찮더라도 꼭 종이에 볼펜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Q. 간호대생에게 추천하는 동아리 및 봉사활동이 있을까요?

A. 방학을 이용해서 집 근처 의료 기관에 봉사활동을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난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도전해봤는데, 한달간 꾸준히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뿌듯한 경험으로 남았어요. 학기 중에는 놀기도 해야하고, 공부도 해야하니 차라리 방학을 이용해 자신이 가능한 시간대에 맞춰 봉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 3학년 최예진

Q. 병원실습 꿀팁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A. 생각보다 한 간호사 당 담당하는 환자가 많아서 간호사 선생님이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열심히 간호사 선생님을 열심히 따라다녀야 잘 알려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다녀야 합니다. 처음 실습을 가면 병동을 파악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세요. 혈압계와 체온계가 어디에 있고, 선생님들이 입력하는 시간을 보고 미리 말씀드려서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병원실습에 준비하면 좋은 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가장 중요한 건 적극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스테이션에 계속 서 있기 보다는 선생님 옆에서 환자를 관찰하거나 꼼꼼히 기록하세요. 실습할 때 앉아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다리가 아프니 압박스타킹을 잘 신고 다니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 바쁜 시간대를 피해서 꼭 질문하여 배우세요.

Q. 실습에서 겪은 어려움과 자신만의 극복방법이 있을까요?
A. 실습에 더불어 퀴즈, 케이스까지 하여 이론에 비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미리 헬스를 다니거나 호수를 자주 돌아서 체력을 길러놓으세요. 밤을 새는 일이 많을 텐데 실습하면서 졸지 않기 위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다들 무리해서 밤새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생활하세요.

Q. 3학년 학점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이론 같은 경우 그날 배운 내용은 바로바로 복습하여야 합니다. 블럭 시간제라 해야 할 양이 방대하기에 2학년 때처럼 미루다간 큰 코 다칩니다. 그날 배운 내용은 꼭 그날 한번이라도 읽으세요. 눈에 익혀두면 나중에 외우기 더 편합니다.

Q. 케이스 작성하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간호진단 책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교수님마다 이론적 근거의 출처와 정확성, 간호계획의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르기에 교수님 스타일을 파악하세요. 환자에 대한 파악은 완벽히 되어있어야 합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진단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중재를 적으면 더 편합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쓰다보면 자연스럽게 잘 쓸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 4학년 조민영

Q. 4학년이 되기 전에 간호학과 관련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추천하는 활동이 있나요?
A. 4학년이 되면 학기와 취업을 병행하느라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이 없으니 그 전에 다양한 활동을 해보길 추천합니다. 대한간호대학생협회, 드림널스, 간준모와 같은 단체에서 진행하는 활동부터, 아르바이트까지. 분야에 제한 없이, 대신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간호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활동은 나중에 자소서에 녹여내기에도 용이합니다.

Q. 후배들에게 추천하는 공부법과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A. 그날 할 것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3학년부터는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여, 짧은 기간동안 나가는 진도와 과제량이 무척 많습니다. 되도록 배운 내용은 빠르게 복습하길 바랍니다. 추천하는 공부법은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며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학과 특성상 국가고시를 대비해야 하다 보니 교수님들께서 그와 비슷한 스타일로 문제를 출제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는게 자장 중요하겠지만요.

Q. 취업을 준비하기에 적절한 시기 및 자소서 작성이나 면접 꿀팁이 있나요?
A.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원하는 병원들이 나뉘어 있어서 희망하는 병원의 지원 시기에 따라 자소서나 면접을 준비하는 시간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보통, 3학년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인 취업준비를 시작합니다. 물론 토익같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미리 준비해야겠죠. 팁이라 한다면, 제 경우에는 지도교수님과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인 글쓰기클리닉의 피드백을 받으며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교내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취창업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꽤 있으니 미리 파악해두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면접은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했던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Q.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나요?
A. 저는 동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취업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했습니다. 결국 같은 고민을 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동기뿐이니, 동기간에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파이팅하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 중 들려오는 다른 친구들의 합격 소식에 뒤쳐진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 병원은 따로 있으니! 나중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취업 준비하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1, 2, 3학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A. 많은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 학점을 회복하겠다고들 많이 말하는데, 다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후회 안 하게 미리 열심히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학년이 되면 정말 체력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힘든 시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두길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그 기억들이 나중에 힘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